2023
July

교회 표어: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쥬빌리 소식지

JUBILEE NEWS LETTER

후러싱제일교회
THE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IN FLUSHING

Table of Contents

1 담임목사 인사말

2 성도 인터뷰 : 최희선, 최홍규 집사

6 성경박물관 방문

7 선교지소식

10 사역자소개

11 역대기 개요

14 교회소식

16 7-8월 행사안내

후러싱제일교회
THE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IN FLUSHING

담임목사 인사말

담임목사 김정호

7월이 오면 되뇌는 상투적인 인사말 같지만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혹은 어느 만큼이나 지속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때입니다.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부닥치든지 우리 교회가 갈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지 예수 잘 믿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때로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본질보다, 우리의 신념이나 감정에 관계된 것들에 더 큰 의미 부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자고 고민하고 회의하고 때론 싸우면서 헤쳐 나가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나의 신앙적 판단과 결정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의 불완전성과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확신에 근거한 신념이 됩니다. 우리의 신념이 신앙보다 강해질 때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내 말과 뜻이 반드시 옳다고 믿는 순간이 오면 그때야말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은 답을 갖고 계시지만,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무더워집니다. 습기가 많은데 기온이 올라가니 불쾌지수도 높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살피고 배려해서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도 작은 행복 만들기 사역들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시간 찾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목회실에 알려주세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교육가와 선교사로서의 삶

최희선, 최홍규 집사

최희선 집사, 최홍규 집사님은 JFON 사역과 음식 나누기 사역 등을 자원해서 섬기고 있으며 사회단체에서도 음식 나누기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에서 수학, 과학 등을 가르치는 섬김을 계획 중입니다. 최홍규 집사님은 에너지 공학으로 석박사를 받은 태양광 전문가입니다. 11년간 탄자니아에서 태양열 전기시설을 통한 전력 공급에 큰 공을 세웠던 선교사로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모태신앙이세요?

(최희선 집사)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책을 좋아해서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성경은 쉽게 읽히지 않았어요. 한글로 된 지명이 요즘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생소하고 이름도 어렵고 내용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는 분이 영어 성경을 주셔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명이나 이름이 현대어로 표현되어서 조금 더 나았습니다. 모세오경, 신약성경 등을 읽긴 했지만, 성경 말씀이나 교회를 그렇게 썩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플러싱에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를 진입하려던 중 길을 잘못 든 바람에 우연히 한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온 김에 좀 쉬면서 교회 구경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차를 세우고 둘러봤습니다. 교회 게시판에 온두라스 단기선교 자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니 '우리 아이들을 보내면 그곳에 가서 보고 배우는 것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보내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 교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하더라구요.

단기선교 팀장인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단기 선교에 보냈습니다. 막상 보내고 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성경말씀도 모르는 데 적응은 잘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걱정되니 기도가 절로 나오더군요. 거기서 말썽부리지 않고, 늦잠 자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다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살았는데 40분 정도 운전해서 새벽예배를 매일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단기선교 가 있는 2주 동안 매일 나갔죠. 아이들이 단기선교에서 돌아온 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열병을 앓고 심하게 아팠습니다. 새벽기도를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계속 나갔는데 하다 보니 재미가 있어졌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개학하고 등하교 시켜주다 보니 새벽기도회를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학교육에 관한 광고를 보았는데 기독교 교육 과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교육 쪽 전공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기독교 교육

을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기도회 못 나가는 마음의 짐을 신학교육을 통해 좀 덜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게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전화한 곳이 바로 그 교회 사무실 앞이었습니다.

등록하고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습니다. 다른 과목도 기회가 있는 대로 들었고 특강 같은 때는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게 된 때가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할렐루야 백화점이라는 서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책을 자주 사 보곤 했습니다. 담임목사님이 제게 그 서점을 맡아서 운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책을 좋아했으니까 제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 좋은 신앙 서적을 추천해 주는 책임도 맡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때 본 책 중에 헨리 나우웬의 “상처 입은 치유자”가 기억납니다.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다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후러싱제일교회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최홍규 집사는 이미 탄자니아에 가고 없을 때였기 때문에 저 혼자 살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바로 앞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사고 후유증 때문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못 나가다가 부활절에는 그래도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예배당에 올라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좋아하던 새벽기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어느 날 방에 누워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 목발을 짚고 우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남편은 탄자니아에서 돌아올 상황이 아니었고 저는 교통사고가 나서 움직일 수 없어서 가만히 누워있는, 어찌 보면 절박한 상황인데 의외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에 읽었던 헨리 나우웬의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대에 누웠을 때 ‘알지도 못하는 의사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자기 생명을 의존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고 사는 걸까?’ 하는 구절을 읽은 기억이 났어요. 새벽기도를 5년 정도 나왔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같이 베이글을 먹으며 친교를 나눴던 기억도 나네요. 나중에 한글학교 교사 모집에 자원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탄자니아 선교사로 간지 7년 만의 재회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최홍규 집사) 돌이켜 보면 뉴욕에 와서 가장 힘들 때, 속된 말로 깨질 대로 깨진 시기에 탄자니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프라미스교회에 다닐 때 그곳 담임목사님이 탄자니아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탄자니아에 있던 한 교회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하다가 예산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라미스교회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모양입니다. 문제 중의 하나가 전기였는데, 해결책으로 거론된 것이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 공급이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햇빛이 강한데 이용하지 못하고 전기 보급률도 낮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때가 15년 전인데 지금보다 태양열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했고, 보편화되지도 않은 때였죠. 그래서 태양열이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았고, 디젤 엔진을 이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담임목사님은 제게 설계를 해 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예산은 5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보스턴에 좋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부품들을 주문하고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그 회사를 통해 필요한 좋은 물건들을 모두 구입해서 탄자니아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에 회사가 사정이 생겨서 후원이 끊기는 바람에 서류 미비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국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었기에 탄자니아에 가지 못하고 다른 분을 대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전기 전문가여서 태양열 전기 설계와 시스템을 금방 이해하고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서 설치하고 별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몇 개월 후 고장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치했던 그 전기 전문가는 다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미국에 5년 동안 서류 미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안에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가기로 한 거죠. 그때가 2010년 10월 20일이었습니다.

가는 동안 비행기 안에서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전기전문가가 만든 시스템을 내가 가서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도착하니까 그 교회 부목사님이 공항에 마중을 나왔고 저를 선교사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시스템을 점검해 보니 만들어 놓은 시설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시뮬레이션했을 때보다 규모가 크니까 인버터라고 불리는 부품을 하나 더 필요로 할 뿐이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교인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후에 탄자니아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햇빛이 워낙 강하니까 태양광은 블루오션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탄자니아에 온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선교 지원도 끊기고 스스로 뭔가를 해서 해결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생들 모아서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의 사역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탄자니아는 면적이 대한민국의 10배, 한반도의 4.3배입니다. 인구는 6,200만 명(2022년 기준)이고 120여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은 농업, 관광, 천연자원 등입니다. 일 인당 국민소득(GDP)은 $75입니다. 제가 있을 당시 국가 개발 비전 2025 계획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70%가 시골 지역에 살았고 30%가 도시에 거주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5%가 국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전기는 전체 국민의 약35%에게 공급이 되었지만 시골 지역은 보급률이 1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시골 주민 약 3천3백만 명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대다수가 살고 있는 시골지역의 경제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탄자니아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내전이나 국가적 혼란이 거의 없는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관건은 경제 성장이었습

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 현지에서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탄자니아 제3대 대통령 벤자민 음카파가 추진한 '탄자니아 국가개발 비전 2025: 열악한 지방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었습니다. 둘째는 탄자니아 건국의 국부인 줄리어스 니예레레가 말한 "진정한 발전은 자국민이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의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교육이다"였습니다.

오랜 동안 수조 달러의 지원이 아프리카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지원이 경제 개발이나 지속 가능한 계획 혹은 국민들의 자립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일회성 혹은 홍보 목적으로만 지출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는 길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수학, 물리, 화학 등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라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시골의 개발(Sustainable Rural Development)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지인들에 의해 유지 관리되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의 기술과 재료 그리고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또한 현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을 고려했습니다. '적정 기술'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현지 사업가 Dr. Moshi 후원($1,000)으로 2011년 9월에 솔라 작업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솔라램프와 전화 충전기 50대를 처음으로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현지인들이 배워서 제작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많은 지역에 솔라램프와 전화 충전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Dar es Salaam 기술공대에서 노하우를 강의했고, 2016년 12월 2일부터 3차례에 걸쳐 한국-탄자니아 에너지 환경 협력 포럼에서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해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에서도 강의했었죠. 그 외에 수많은 대학과 국가 기관에서 강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솔라 에너지 활용 방안에 대해 알리는 일을 해 왔습니다. 2018년에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낮에도 캄캄한 마사이족 토속집에 솔라 램프 전달

성경박물관 방문

지난 6월 6일-7일 1박 2일 일정으로 워싱턴 DC 성경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3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성경책들과 조각 작품, 스토리텔링 전시물들이 테마파크 형식으로 꾸며져 있는 성경박물관을 직접 보았습니다. 오가는 길 유쾌하게 웃으시며 “교회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잘해요?”라고 칭찬하시는 말씀에 덩달아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성경박물관, 링컨 기념관, 백악관 등을 둘러보며 첫날을 보냈고, 둘째 날은 미국 역사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등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성경박물관에 관심을 보이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 미국 역사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등도 호기심 있게 즐기시는 모습이 좀 새로웠습니다.

돌아온 뉴욕에 캐나다 산불 때문에 뿌연 연기가 껴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르신들 좋아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동행한 박영관 목사님 전문가답게 안내 및 운전 수고 많이 해 주셔서 여행이 더 알차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지 소식

필리핀 웨슬리 신학대학원

이민규 목사

저는 연합감리교회 세계 선교부(GBGM)에서 필리핀으로 파송되어 웨슬리 신학대학원 (Wesley Divinity School, Wesleyan University-Philippines)에서 신약성서를 가르치고 있는 이민규 목사입니다. 빠른 시간의 흐름에 떠밀려 지내다 보니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2023년도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필리핀에 들어와 필리핀 신학교에 머문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 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며 무슨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이 1년이 지나간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지만, 낯선 환경과 결핍 속에 진한 외로움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구해야 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응원과 기도가 저의 사역에 큰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됩니다. 때로는 흔들리며 걸어가는 길이지만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정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함께 전하며 간략하게나마 소식 전합니다.

1. 2022-2023 학기

웨슬리 신학대학원은 2022-2023년 학기를 맞이하며 M.Div(목회학 석사) 과정 1학년에 16명, 2학년 30명, 그리고 17명의 3학년 등록 학생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학 석사과정(M.Div in Europe and Middle East)에는 23명의 선교사/목사 후보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를 끝으로 2022-2023 Academic Year를 마치게 됩니다.

웨슬리 신학대학원 M.Div 과정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은 지역 교회(local church)에 파송되어 목회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목사 안수 과정에 들어가거나 안수받지 않은 단계이지만. 교단이 준비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회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아 목회하는 목사님들입니다. 필리핀 연합감리교회의 경우, 라이센스를 가진 목회자로 파송하고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물론 라인센스 목사로 파송되지 않고 공부를 먼저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소수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입학 후에 지방 교회로 파송되어 목회를 시작합니다.

이는 아마도 필리핀에 세워진 교회 수보다 파송할 목회자 숫자가 적은 이유도 있고, 목회자를 길러낼 교육 기관이 부족하다 보니 교단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회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파송을 받아 목회하면서 공부해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연회에서 수여하는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거나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따라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 교회로 파송되지만, 매주 예배와 설교를 준비하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심방 등 목회자가 해야 할 모든 목양의 업무를 감당하며 공부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교통 상황이 좋지 않고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구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 보통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데만 평균 4-6시간이 걸립니다. 먼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10-12시간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에는 모든 교육과정이 온라인으로 제공되어 통학해야 하는 어려움은 해소되었지만, 느린 속도와 자주 끊기는 인터넷,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폰에 의지하여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COVID-19의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상황에 따른 어려움들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목회하며 학업을 마무리하려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0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고, 지역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지식의 습득이나 학문적 능력에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와 소명 자체로 귀한 분들입니다. 아직 졸업이 결정되거나 안수 과정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웨슬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종합고사

지난 5월 첫 주에 M.Div 과정 졸업을 준비하는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종합 고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직 마무리해야 할 수업들이 남아있고 논문도 제출해야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신학적 사고들을 정리하며 마무리 짓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지난 12월에는 졸업 논문의 연구계획서(Proposal)를 발표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논문이라기보다 각자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또는 특정교회의 목회 상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목양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는 '목회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졸업을 준비하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은 총 17명입니다. 이번 3학년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신학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팬데믹의 여파로 3학년이 될 때까지 학교에 가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작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의지하여 수업하였고, 같이 수업하는 동료들도 온라인에서만 관계를 맺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중요한 토론이나 그룹 활동, 영성 개발을 위한 관계 형성이나 채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지난 9월 3학년 과정을 시작하며 3학년 학생들만 전면 대면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직 학생을 위한 기숙사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정부로부터 전면 대면 수업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특별한 배려를 한 것이지요. 기숙사가 없는 관계로 학생들은 교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함께 숙식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며 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의 여파로 마무리되지 않은 과목이 있고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학교의 행정 문제로 이번 여름에 상당수가 졸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 학기를 더 공부하며 필수 과정들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한 학기를 더 하게 될 경우 학비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학생들은 처음에 큰 실망감을 내비쳤지만, 상황을 받아들이고 문제가 있다면 모두 잘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논문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낸 모든 학생이 큰 어려움 없이 모두 졸업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도서관

이번 학기에 신학대학원 도서관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사실 웨슬리 신학대학원을 비롯하여 필리핀 대부분의 신학교를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도서관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도서관을 구비하고 있는 학교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자국에서 출판되는 신학 서적이 거의 없기에 미국에서 출판되는 서적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필리핀의 경우 자국에서 출판되는 신학 서적이 거의 없기에 미국에서 출판되는 서적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신학생들의 형편으로 비싼 미국 책들을 구입하거나 소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필리핀 신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을 발전시키고 소장 도서를 늘리고 여러 가지 온라인 자료들을 구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웨슬리 신학대학원도 작은 도서관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건물 이전으로 인해 거의 창고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하며 사용할 수 있는 책들과 오래된 책들을 구분하여 정리했고.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PDF 파일과 e-book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자료를 검색 다운로드할 수 있는 EBSCO Host에 등록하였고, 디지털 신학도서관(THEDTL) 이용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소개

이상재 목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재 목사입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인 최기향 사모가 있고, 지난 5월 20일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고, 조부모님부터 3대째 감리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고,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미국으로 건너와 Claremont School of Theology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신학생 시절부터 계속해서 간사, 전도사로 사역하였고, 2013년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앨라배마 몽고메리 제일감리교회에서 3년, 엘에이 밸리주하나교회에서 8년간 사역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교육 부서와 예배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성도님들과 아이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위해 사역 중입니다.

저의 목회 사역은, 담임목사님을 도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준비하고, 모든 성도님의 삶이 기쁨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돕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러싱제일교회의 아이들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반갑고, 행복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담임목사님을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역을 허락해주신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기 개요

역대기서의 역사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겹치는 동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 동일한 시대 배경을 다루는 이유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여러 권 존재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누가 언제 누구를 위해 썼는가 하는 배경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 때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다룹니다. 북이스라엘 20명, 남유다 20명 등 총 4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까지의 긴 역사를 다룹니다.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아합 2명만 간단히 취급합니다.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고대 중동 역사

주전 605년 갈그미스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격파함으로써 중동 패권이 바벨론에 넘어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멸망했고 주전 605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번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한번은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두 번째는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은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고 유다 백성들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었는데, 나라도 잃고 포로로 끌려와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 것일까?’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바벨론 우상 마르둑 신전을 보고 ‘마르둑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전의 크기는 신의 능력으로 인식되던 때였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고발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언약에 따른 벌을 받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온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앗수르와 바벨론을 이용해서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을 처벌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제국도 마음껏 도구로 부리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예언자들의 활약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70년을 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정착하고 잘 살아라. 바벨론에서 평안하게 잘 살려면 바벨론의 평안을 빌라’고 권면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왕이 앉아 있는

어좌, 즉 왕의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 위로 하나님의 의자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 같지만 더 높으신 하나님, 하늘의 대왕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보면 마르둑을 포함한 모든 이방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고, 돌이나 나무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이라고 선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무력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직접 그들을 통치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시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부재한 시대, 이방 왕의 통치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유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왕으로 해야 할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주전 561-560년에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석방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합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아직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주전539년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였습니다.

포로의 귀환

주전 537년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소수지만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70년 동안 팔레스타인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마리아에 이주시켰던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자 아주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70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으니 귀환한 사람 중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민 2-3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에 따라 조상들의 나라로 온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그들을 맞이한 것은 70년간이나 버려진 황폐한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읍, 그리고 처참한 모습의 성전이었습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앗수르가 사마리아로 데리고 온 이방 민족들의 후예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70년간이나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니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성전 재건을 다시 시도하기로 하고 우선 살 수 있는 집과 생활 터전을 마련하기로 합니다.

이때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해서 그런 유대인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부터 지으려는 태도 때문이라고 하죠.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는 유대인들을 독려

해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다시 힘을 낸 유대인들은 주전 516-515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것을 제2성전이라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부흥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는 여전히 건재하고 유대인들의 삶은 궁핍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면 페르시아는 멸망하고 유다는 독립된 국가로 부흥하리라는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낙담하고 실망해서 영적인 타락에 빠집니다.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결국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정체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1. 이 낯선 땅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낯선 땅의 역사, 지리, 환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2.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데 그 성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3. 이 척박하고 황량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쓰인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다윗 가문(유다 지파)과 예배를 인도하던 아론 가문(레위 지파)의 족보를 처음부터 포로귀환 당시까지 전부 언급하면서 성전이 존속하는 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지켜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조금은 닮았습니다. 신분 문제, 직장 문제, 인종 차별 문제 등을 겪으며, 낯선 땅, 낯선 문화, 낯선 언어를 접하며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가 역대기를 묵상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와 찬양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역대기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언약 공동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여전히 유효한 신앙공동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소식 (6월 교회행사)

입교식

지난 6월 25일(주일) 3부 예배 중에 총 3분의 입교식이 있었습니다(김경록 집사, 김병옥 집사, 전의자 권사). 3주간 기독교 신앙의 기본교리, 연합감리교 교리와 역사, 그리고 담임목사님과의 면담 등 3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입교식을 했습니다. 새로 후러싱제일교회의 가족이 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아름다운 신앙공동체 함께 만들어 가기 소망합니다.

유초등부 PTA

유초등부 학부모님들과 담임목사, 담당 교역자들과의 PTA가 지난 6월 25일 오후 1시에 유초등부 예배실에서 열렸습니다. 사역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교회는 이상재 목사기 유초등부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유초등부의 활발한 활동과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Hallelujah Youth Conference

지난 6월 23일과 24일, 할렐루야 Youth 컨퍼런스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All About Jesus” 이었고 뉴욕 전역의 18개 교회의 학생들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는 말씀을 들으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중고등부 연합 여름수련회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2박3일동안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학생과 교사 포함 35명이 참가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아이들의 건강과 스케줄 진행이 잘 될지 걱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셔서 햇빛도 좋고 덥지 않게 건강하고 즐거운 수련회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시: 6월 28일(수)~30일(금)**
- **장소: Tuscarora Inn & Conference Center, PA**
- **강사: Rev. Joseph Yang (Manhattan Chinese UMC 담임)**

7~8월 행사 안내

섬김의 사역자 학교

섬김의 사역자 학교 2023년 여름학기가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8월 6일 휴강)의 일정으로 6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섬김의 학교는 총 3과목이 열리며 과목 당 인원은 15명입니다.

- 김정호 담임목사
- 박영관 목사
- 신기성 전도사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목회실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718-939-8599/ fumc@fumc.net)

여름 성경 학교 (VBS)

금년 여름성경학교가 오는 8월 25일부터 열립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실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유초등부를 향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8월 25~27(9am~4pm)
주제: Stella-Shine Jesus Light

스포츠 교실 여름학기

오는 7월 7일(금) 탁구 교실을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총8주 일정으로 스포츠 교실 여름학기가 열립니다. 건강도 지키고 함께 친교도 나누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종목
   a. 탁구 (화: 오전 10:30~오후 12:30/ 금: 오후 6~8)
   b. 검도 (화&목: 오후 7:00~9:00)
2. 문의: 목회실 또는 김현정 집사(917-478-4868)

평온한 날의 기도

박목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평온한 날은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양지 바른 창가에 앉아
인간도 한 포기의
화초로 화하는
이 구김살 없이 행복한 시간

주여
이런 시간 속에서도
당신은 함께 계시고
그 자애로우심과 미소지으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평온한 날은 평온한 마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강물같이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순탄한 시간을 노젓는
오늘의 평온 속에서
주여,
고르게 흐르는 물길을 따라
당신의 나라로 향하게 하십시오

3월의 그 화창한 날씨 같은 마음속에도
맑고 푸른 신앙의 수심(**水深**)이 내리게 하시고
온 천지의 가지란 가지마다
온 들의 푸성귀마다
움이 트고 싹이 돋아나듯
믿음의 새 움이 돋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SERVICES

주일 SUNDAY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00 am @본당
4부(영어) 1:00 pm @본당
5부 2:30 pm @본당

영어예배 ENGLISH SERVICES
SUN 1 pm @MAIN CTR

주중예배 WEEKLY SERVICES
새벽 6am 본당/온라인
수요일 8pm 본당/온라인

교육부 예배 및 모임 SUNDAY SCHOOL & YOUTH

주일 SUNDAY SCHOOL (ED BLDG)
영아부(만2세미만) 11 am
유아부(만3세미만) 11 am
유치부(만3-4세) 11 am
유초등(K-5) 11 am

청소년 YOUTH (ED BLDG)
중고등부(6-12) 11 am

교회 부설 학교 FUMC ACADEMY
K-Culture School 9:30 am (Sat)

생방송(Live)
https://www.fumc.net/web/live/
새벽예배와 주일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상담실 문의: 718-939-8599

설교방송 TV/RADIO
주일 10 am
Voice of NY 라디오 코리아 FM 87.7
(앱 FM 877)

주일 9 am
CTS (Cable TV 1156, DIRECTV 2092)

월요일 7:10 pm
CGNTV (TWC 1296/1492, DTV 63.2)

토요일
CTS (Cable TV 1156, DIRECTV 2092)
- 9 pm
cbsn (www.cbsnewyork.net)
- 9am / 7pm

발행인: 김정호
편집인: 문서출판부

38-24 149th Street, Flushing, NY 11354
Tel. (718) 939-8599
Email: fumc@fumc.net
홈페이지: www.fumc.net